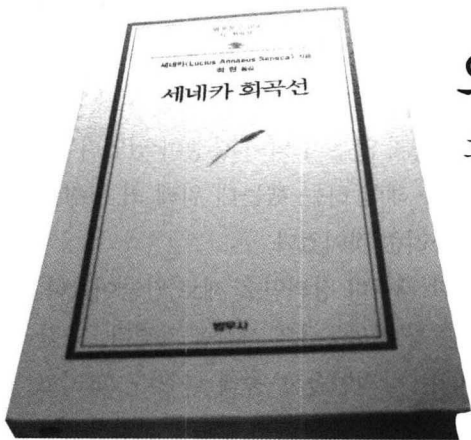


《세네카 희곡선》

중역(重譯), 먹기도 버리기도 곤란한 '계록'



《세네카 희곡선》 | 세네카 지음 | 좌현 옮김 | 범우사 | 159쪽 | 값 29,800원

외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들은 얘기다. 학기가 시작되어 새로 읽을 작품이 공표되면, 그 작품의 우리말 번역물을 찾아오는 학생이 하나씩 있다. 도대체 그런 작품이 번역된 적이 있었던가 싶은 경우에도, 어디서 어떻게 찾아냈는지, 누런 종이, 세로쓰기, 엉성한 활자일지라도 인쇄된 번역본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양고전 작품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설마 이걸 번역이 없겠지 했던 것이 이따금 '짤!' 하고 나타나는 일이 있다. 저 유명한 '폭군' 네로의 선생이었던 세네카의 비극 작품들도 그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네카의 잠언 모음만이 출간되어서, 그를 옛 현인 중 하나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후대에 끼친 영향으로 보자면 비극 작품들이 더 중요하며, 시급히 번역되어야 할 것도 사실은 이것들이다.) 나는 이 책을 문고판 목록에서 발견했는데, 나중에 보니 같은 출판사의 다른 책(《그리스 로마 희곡선》, 아리스토파네스 외 지음, 좌현 옮김, 1998) 속에도 들어 있었다.

이 책은 세네카의 이름 아래에 전해지는 10개의 작품 중에 두 개, 〈아가멤논〉과 〈힉폴리투스〉를 옮겨 실었다. 그 중 앞의 것을 보자.

막이 열리자 튀에스테스의 혼령이 나타난다. 단지 작품 도입부 대사를 하기 위해 저승에서부터 수고스런 여행을 한 이 혼령은 대사 중간에 저승을 묘사하여 그곳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준다. “그곳에서는 이프시온이 언제나 수레를 끌고 있다. … 독수리는 테티스의 쓸개를 쪼고 있다”(14쪽). 사실 저승에서 벌 받는 인물들은 일종의 ‘관광목록’ 으로서 〈오뒷세이아〉에서부터 등장하던 것인데, 그 사이에 인물들이 교체된 것일까? 헤라를 넘본 죄로 영원히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인 사람은 ‘익시온’ 이 아닌가? 그리고 저승의 독수리는 왜, 레토를 납치하려던 ‘티튀오스’ 가 아니라, 제우스도 존중하던 여신 테티스를 괴롭힌단 말인가? 한데 라틴어 원문을 보니 원래는 이들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 지시대명사들이 친절한 역자에 의해 고유명사로 바뀌는 도중에 엉뚱한 철자를 얻은 것이다.

혼령은 독백을 계속한다. “티에스테스도 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그가 아들들을 잡아먹어 자기 배를 아들들의 무덤으로 만든다면 나는 나의 살로 굶주림을 채울 것이다”(15쪽). 튀에스테스의 형인 아트레우스는 조카들을 잡아 그들의 아버지에게 먹였다. 그런데 여기는 엉뚱하게 아트레우스가 제 자식을 잡아먹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아들들인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가 먹혀버렸다면 트로이아 전쟁은 대체 누가 수행한단 말인가? 원문에 따르면 튀에스테스는 ‘세 아들을 자신 속에 묻’ 었던 것이다(liberis plenus tribus/ in me sepultis, 26-7행).



글_ 강대진 서양고전학자

●이 글을 쓴 강대진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서양고전학 전공과정에서 플라톤의 〈향연〉 연구로 석사, 같은 과정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잔혹한 책읽기》, 《신화와 영화》, 역서로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이 있다.

이 혼령은 이상하게 날이 더디 밝는다면, 혹시 자신이 이승에 머물고 있는 게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 포이보스는 자기 모습을 두려워하고 있다”(167쪽). 하지만 태양신인 포이보스 아폴론이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그저 이 혼령 때문에 지체하고 있을(그렇게 생각될) 뿐이다(Phoebum moramur?, 66행).

혼령이 사라지자, 합창단이 천문학적 오해를 노래하며 나타난다. “하늘의 견우성이 대응성과/ 소우성을 인도”(17-8쪽)한다는 것이다. 여기 “견우성”이라고 옮겨진 것은 ‘목동자리(Bootes, 70행)’이다. 큰곰자리 가까이 있는 이 별자리는 ‘소몰이꾼(ox-driver)’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견우(牽牛)’로 오해 받는다. 하지만 견우는 멀리 독수리 자리에 있다.

그 다음엔 클뤼타임네스트라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이상하게도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존대말을 쓴다. “그래요. 당신은 도둑처럼 이 나라를 떠나야 해요. … 당신의 언니도 그렇게 했어요”(22쪽). 역자는, 그녀가 유모와 함께 등장했으니, 유모와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이 첫 대사는 독백이고, “당신”은 자기 자신이다. 또 그녀는 도주가 아니라, 남편을 살해할 것을 결심한다. 그러니 위의 첫 문장은 ‘왜 너는 소심하게도 은밀함과 망명과 도주를 언급하는가’가 될 것이다 (quid timida loqueris furta et exilium et fugas?, 123행). 뒷문장에서 “당신의 언니”라고 한 것은 헬레네를 가리키는 말이니 ‘네 동생’이나 ‘너의 자매’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헬레네는 클뤼타임네스트라보다 나이가 어린 것으로 되어 있다. (역자는 메넬라오스도 아가멤논의 형으로 만들고 있다. “국왕의 형님도 무사히 돌아오셨나요?”, 42쪽)

다음 장면에 다시 등장한 합창단은 승리를 기뻐한다. “포이보스여, … 그대가 신들에게 들려주던 찬미가를/ 큰 소리로 노래해 주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무서운 괴물 티타네스가/ 올림포스까지 가려고/ 옷사를 페리온 위에 걸쳐 놓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포스가/ …/ 높은 봉우리를 드러내고 서 있었던 것도/ 또한 티타네스가 벼락을 맞은 것도”(36-7쪽). 틀린 곳이 너무 많아 일일이 지적하기 곤란할 지경인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때였어요”의 “그때”가 어디 걸리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문장은 원래, 합창단이 아폴론에게 노래를 청하면서, 그가, 옛날 신들의 전쟁에서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했을 때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불러도 좋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그러니 “바로 그때였어요”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문장으

로, ‘그때 불렀던 노래를, ~하던 때에(licet … sonos/ quale canebas/ cum …, 338-40행)’로 옮겨져야 한다. 또 산을 쌓았던 것은 티탄들이 아니라 거인들이며, 그들의 목표는 올림포스가 아니라 하늘이고, 올림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있었던 것이 아니라, 옷사와 펠리온 두 산 위에 쌓여 그들을 누르고 서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 합창단이 디아나를 부르는 대목 역시 놀랍다. “디아나여, … 그대의 교만한 아내는/ 시필스의 영마루에 바위가 되어 솟아 있지요”(39쪽). 여신 디아나(아르테미스)에게 아내가 있다니! 이것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다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그 자식을 모두 잃고, 시필로스 지역의 바위가 되어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니오베 얘기다.

다음 장면에는 아가멤논의 전령인 에우뤼바테스가 등장하여 귀국 도중 만났던 폭풍을 묘사한다. “피루스는 그의 아버지를 원망하고, 유리스는 아이악스를, …, 아가멤논은 프리아모스를 원망했어요.”(47-8쪽) 얼핏 보기에 이들은 자신의 불운이 다른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사실은 ‘원망’이 아니라, ‘부러워’ 하는 중이다(invadet, 512행). 젊은 퀴로스(네오톨레모스)는 전장에서 죽은 자기 아버지 아킬레우스가 자신보다 더 나은 운명을 누렸다고 생각하는 식이다. 그런데 “유리스”는 누구인가? 바로,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두고 경쟁하다가 아이악스(아이아스)를 자살하게 만든 ‘올릭세스(오뒷세우스)’다.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던 고유명사 몇 개만 더 지적하자. 파리스가 죽은 뒤 헬레네의 새 남편이 된 ‘데이포보스’를 “디호프스”(61쪽)로 옮긴 것. “열두 가지 공로로 말미암아” 올림포스에 살게 되었다는 “용사 아르키데스”(65쪽). (헤라클레스를 달리 이르는 말인 ‘알카이오스의 자손(Alcides)’이 이렇게 되었다.) 메데이아의 고향땅에 흐르는 ‘파시스’ 대신 “라시스”(22쪽), 알키오네의 남편인 ‘케웁스(Ceyx)’ 대신 “세유크스”(58쪽) 등.

물론 전체의 줄거리만 알면 된다는 분은 이런 모든 흠들을 눈 감고 지나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 위의 장면 뒤에 아가멤논이 등장하여 아내에게 죽는다는 것, 엘렉트라는 동생 오레스테스를 빼들리고, 캣산드라는 죽음을 당하러 끌려간다는 것을 전하자.) 하지만 줄거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요약본이지 번역이 아니다. 일단 번역이라면 가능한 데까지 원문 내용을 충실하게 전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원어에서 옮긴 것도 아닌데 너무 까탈을 부린다고? 그렇다.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은, 중역(重譯)은 계륵(鷄肋)이다. 